

## SERMON 23 OCTOBER 2016

### Luke 18: 9-14

때로는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이 꽤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금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해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지리라.” 네 이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오늘 찬송 한 두 곡을 더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을 봉헌하고, 축복을 받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두주 전 성구 집에 적혀있는 성경 본문을 읽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고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단순 한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아마 지금쯤이면 누가 복음의 주제인 위대한 반전에 대해서 잘 인식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 송가 시작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복음 1 장에 마리아가 아들을 가질 것 이라고 이야기한 마리아의 노래 입니다. 여기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여인을 기뻐하며, 가난한자를 높여주시고, 배고픈 자를 만족시키시고, 침묵하는 자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억압하는 자를 누르시고, 배부른 자를 공허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시고; 어미의 뱃속 어둠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자손과 거 하시 도다. 하나님 갈망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 갈망을 찬양하라. 참으로 예수님은 그가 모든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갈망함을 수행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고통 받는 자에게 평화를 희망이 없는 자에게 진정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이 부분만으로 본다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 로마 정복자와 결탁하고 종종 그들의 능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부자가 된 사람 들과도 말입니다. 죄인은 유대인의 법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고통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32 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사람들을 분류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사람 같이 않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평가하지 않으신 것을 비유에서 이해하셨는지요.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정의로움에 확신하고 그것에 관해서 장황해 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28 글자인 그의 기도는 장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자신에 관한 진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신에 묘사는 정말 옳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단지 7 글자로 하나님께 회개 합니다. 그 자신에 대한 단 하나의 언급은 그 자신이 죄인 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의 하나님 갈망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들 자신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좋은 행위의 나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 예수님은 죄와 실패에 초점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공허함과 필요를 아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항상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으로 보신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위험을 초래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투영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람을 위한 하나님 갈망의 찬양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Come as you are, that's how I want you." 이 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를 아시는지요? 여러분이 그럴 것 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몇 주전에 우리가 되돌아본 연약함으로 저를 끌어 당깁니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 안에 모두 판단에 관한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 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약점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일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가기 위해 무엇을 입으면 보기에 좋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 어쩌면 저

혼자 이야기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물론 다 피상적인 것입니다. "Come as you are..." 이것이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제가 믿기로, 그러한 바램은 우리가 더 좋게, 낫게, 훌륭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사실 그것은 그 반대에 관한 것 입니다. "인간(human)" 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과 같이 "땅(earth)"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담의 이름도 여기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 보다 도 더 기본이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저는 몇 일전에 이것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C.G. Jung 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John Bunyan's 천로역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Jung 에게 물었습니다, "진정 당신의 순례는 무엇과 같았는지 물었습니다?" Jung 은 대답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천로역정은 내가 나의 손을 지구의 작은 흙 덩이에 펼칠 때까지 수 천 개의 사다리를 내려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삶이 이것처럼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의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인용한 마이스트 에크, 17 세기 도미니칸, 본질적으로 영적인 삶은 더하는(addition)것 보다 도 줄이는(subtraction)것에 더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여기에 근본적인 진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이 반 문화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은혜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갈망의 노래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줄이기의 예술은 모든 종류의 방법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을 벗어내는 것을 묻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간소화"를 시도하며 서류덩어리를 정리하며 많은 부분을 버렸습니다. 저는 젊은 신부가 그의 첫 번째 사역지로 도심지역 교구 조수로 간 이야기에 관해서 읽었습니다.

그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무덤으로 둘러 쌓여있는 교회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 외모가 지저분해 보이는 남자가 입안에 음식을 넣고는 혼잣말로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신부는 그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이야기 하며 떠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남자는 뒤뚱거리며 걸으며 여전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가 그의 관리 신부를 만났을 때, 그는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 신부는 이야기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압니다. 불행히도 그는 한때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사고를 당하였고 그리고 그의 기억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다시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것도 모릅니다. 그는 절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신부는 이 노숙자인 빈민을 보는 것에 익숙해 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교구를 막마치려고 할 때, 그는 교회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의자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올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젊은 신부는 그 남자 가까이 조용히 의자 옆에 앉아서 잠시 후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떠나려고 합니다. 저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지요?" 그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동정”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말이 그로부터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의 노래. 무엇이 진실인지의 실제적인 본질.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이상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가까운 것을  
깨닫게 하며, 사랑에 가깝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 집니다.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듣기를 더 명확하게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입니다: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 함 입니다. 여기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경매인이 오래된 바이올린을 들어올려서 입찰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1 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 , 한참을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3 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흰머리를 가진 늙은 노인이 무리들 중으로 나와서는 오래된 바이올린을  
들고는 먼지를 틀고 바이올린 줄을 조정하고는 바이올린 활을 들고 순수하고 달콤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입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바이올린은  
\$3,000 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오래된 바이올린의 가격을 바꾼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스터  
손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갈망의 노래는 진실하고 그리고 모든 발견 되어야 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나이, 육체적인 투쟁, 얼굴의 주름과 눈물, 눈에 띄도록 줄인 살 -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간주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숨기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한 위장과 방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에 포함되거나 음악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포함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자신의 정의로움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비유로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자신을 보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의의 빛을 보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 모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어떤 한 그룹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감을 두고 서있다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이 세리는 확실히 어떠한 것을 드러야 할지 어떠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실패로 어둠에 갇혀 있고 자존 감이 거의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는, 그들을 다르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과 그들의 가치를 다르게 두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안에서 그들의 길을 가고 이해하기를 부르십니다. 이 비유에서 그 두 남자의 인간관계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상황보다도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 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이 형성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입니다.

이 비유는 두 방향들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으로부터 떠나고,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떠나는 것 입니다 -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편견이 놓여 있든 -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과 갈망함으로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 글을 적을 때 저는 유튜브 덕분에 런던의 "the house of the Lord" Jean Vanier 의 연설을 한동안 들었습니다. 그는 60 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은 전세계에 존재하는 L' Arche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장소에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자와 특별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역을 하며, 축복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필요에 중심을 위해서 서로가 만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는 시드니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본 L'Arche house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정말 너무나 아팠고 거의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팔에 잡았습니다. 그는 그가 죽기 전에 그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변화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바리새인은 결코 세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자신감이 있고 모든 것에 옳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아마 세리도 바리새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는 아마 그 자신과 함께 실패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다른 점이 어떤 시간에서나 장소에서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비유는 우리에게 상기 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정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자아의 의식이 너무 강한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초청 받은 것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노래의 의미는 우리는 갈망함의 음악에서  
진실한 우리 자신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만나는 것 입니다. 그것이  
변화로 인도하는 것 입니다.